



■ 공통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문제에 답하시오.

(가) 논어(論語)에서 발췌한 공자(孔子)의 언명

(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仁)이 멀리 있는 것이냐? 내가 인(仁)을 바라기만 하면 인(仁)은 바로 곁에 있다” 라고 하시었다.

(『논어(論語)』 「술이편(述而篇)」)

(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지위(地位)에 있지 아니하면 그 정사(政事)를 꾀하지 아니한다” 고 하시었다. (『논어(論語)』 「태백편(泰伯篇)」)

(3) 자공이 묻기를, “향인(鄉人)이 모두 다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진정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없다” 하였다. 이에 자공이 다시 묻기를 “향인이 모두 다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진정 나쁜 사람인지는 알 수 없다. 향인 가운데 착한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받지만, 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시었다. (『논어(論語)』 「자로편(子路篇)」)

(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새(賜)여 너는 나를 많이 배워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라고 생각하느냐?”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나는 한 가지 이치로 모든 일을 관통한다(일이관지: 一而貫之)” 하시었다. (『논어(論語)』 「위령공편(衛靈公篇)」)

(나) 맹자(孟子)와 순자(荀子)의 철학적 입장을 보여주는 문장 발췌문

(A) 『맹자(孟子)』 발췌문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모질지 못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면 누구라도 깜짝 놀라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생기기 때문이다. ...” (『맹자(孟子)』 「공손추장구(公孫丑章句上)」)

“자신의 마음(심(心))을 극진히 한 사람은 자신의 본성(성(性))을 알게 되고, 본성을 알게되면 하늘(천(天))을 알게 된다.”

(『맹자(孟子)』 「진심장구상(盡心章句上)」)

“만물의 이치가 모두 다 내게 갖추어져 있다. 자신을 돌이켜 성실하면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고, 충서의 도를 힘써 실행하면 인(仁)을 구하는데 그보다 더 가까운 길이 없다.” (『맹자(孟子)』 「진심장구상(盡心章句上)」)

(B) 『순자(荀子)』 발췌문

“도(道)라는 것은 정치를 하기 위한 상법조리(常法條理)이다. 그리하여 마음이 도에 합치하고 설명이 마음에 합치하고 언사가 설명에 합치해서, 명칭을 올바르게 하여 회합하고 실정(實情)에 근거하여 이해시켜, 사물의 상이함을 분별(分別)하여 잘못이 없고 동류(同類)를 미루어 밝혀서 어긋나지 않는다. ... 중략 ... 그러므로 사설(邪說)이 정론(正論)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백가(百家)의 잡설자(雜說者)들도 도망가 숨을 곳이 없게 된다.”

(『순자(荀子)』 「정명편(正名篇)」)

“인도(人道)에는 분별이 없을 수 없다. 분별에는 신분(分)이 가장 중대하고, 신분에서는 예(禮)가 가장 중대하고, 예(禮)에서는 성왕(聖王)이 가장 중대하다.”

(『순자(荀子)』 「비상편(非相篇)」)

(다) 맹자(孟子)와 순자(荀子)의 언명들

(a) 하늘에는 하늘의 절기가 있고, 땅에는 땅의 자원이 있고, 인간에게는 이들을 다스릴 능력이 있다. 무릇 이것이 셋일 수 있다는 말이다. ... 중략 ... 사람들은 모두 생성된 자연현상은 알지만, 무형한 그 과정 자체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것을 일컬어 하늘의 기능이라고 한다. 오직 성인만이 하늘을 알려고 추구하지 않는다.

(b) 사람마다 입은 맛에 대해서 동일한 기호가 있고, 귀는 음악에 대해서 동일한 청각이 있고, ... 중략 ... 그렇다면 마음만 유독 동일한 점이 없겠는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동일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도리(이(理))요 의리(의(義))인 것이다.

(c) 이름을 제정하여 실상을 지칭하게 하여, 위로는 귀천의 구별을 밝히고, 아래로는 동이를 변별한다. 귀천의 구별이 밝혀지고 동이가 변별되면, 뜻이 전달되지 못할 염려가 없고, 일이 막히고 안 되는 재앙이 없게 된다.

(d) 아랫 사람이 웃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귀한 사람을 귀하게 하는 것이라 하고, 웃사람이 아랫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어진 사람을 존경한다고 하는 것이니 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나, 어진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나 그 뜻은 같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맹자(孟子)는 이른바 유가의 이상주의자로서 인간의 내적 본성이 선(善)하다는, 즉 성선(性善)의 공통성을 강조하면서 공자(孔子)의 사상을 도덕주의적 관점에서 해석 계승한 반면, 순자(荀子)는 유가의 현실주의자로서 일정하게 정해진 외적 강제 규범의 성격을 지닌 예(禮)의 실행을 통해 도덕적 질서가 구현된 사회, 즉 공자(孔子)가 꿈꾸었던 주(周)나라의 문화 제도적 가치 실현을 전국시대 말의 시대상황에 맞추어 구현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래에 주어진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시오.

201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기출문제



[문제 1] (가)는 논어에서 발췌한 문장들이고, (나)는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맹자와 순자의 입장이 담긴 문장이다. (가)의 문장 가운데 맹자와 순자가 자신의 공자 계승 입장을 정당화하고자 할 때 각기 상대적으로 보다 더 친근하게 취하고자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장들을 맹자와 순자의 진술 (A)와 (B)의 내용에 근거하여 모두 적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30~250자, 50%)

[문제 2] (다)의 문장들은 맹자와 순자의 진술을 임의로 나열한 것이다. 이 가운데 맹자의 진술로 보이는 것과 순자의 진술로 보이는 것을 가려 묶고 그 이유를 주어진 문장 내용 분석을 통해 설명하시오. (230~250자, 50%)

■ 공통 2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문제에 답하시오.

(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다. 피상적으로 보면 한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은 양립하기 어렵다. 한국적인 것은 한국만의 특수한 것이고 세계적인 것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두루 통하는 보편적인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장 한국적인 것은 보통의 한국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로 한국적인 것이고, 가장 세계적인 것은 보통의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로 세계적 인 것이다. 그러나 극과 극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는 궁극적으로 같은 것에 도달하게 된다. 이 극과 극은 어떤 관점에서 만나는 것일까?

(나) 지금부터 1백 여 년 전에 서양 문물이 밀려들 때 우리 선조들이 이 물결을 외면했던 것과 달리 이웃 일본은 발 빠르게 세계화를 추진하여 짧은 시간에 국력을 키워 나갔다. 그 시대의 세계화의 핵심은 앞선 외국 문물을 학습하고 수용하여 소화시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백 여 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또 다른 세계화 물결에 직면해 있다. 단순히 남의 것을 배워 소화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나가 남과 함께 살아가는 적극적 진출로 삶의 터전을 세계화하는 것이다. 국경의 의미가 흐려지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온 세계를 삶의 공간으로 삼아 다른 나라에 나가 공장도 짓고, 회사도 차리고, 연구소도 만들고, 장사도 하고, 농사도 지어야 한다. 전자를 제1의 세계화라 한다면 후자를 제2의 세계화라 할 만하다.

이른바 제2의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은 개별 국가의 국민 의식이 아니라 보편적 세계 시민 의식을 갖추어야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가치 질서에도 익숙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도 고치고 누구와도 함께 살아가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나라 안의 제도도 세계화에 불만이 없도록 고쳐나가야 한다. 경제 체제, 교육 내용, 법과 제도, 기업가의 자세 등을 모두 세계화를 전제로 고쳐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의 평가 기준도 세계화를 염두에 두고 설정되어야 한다.

(다) 약마가 둔갑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비둘기와 어린 양이라는 속담이 있는 걸 보면 서양에서의 비둘기의 이미지는 좋은 편이다. 이 세상의 악을 쓸어내는 대홍수 때 노아가 방주에서 날려 보낸 비둘기가 올리브 나뭇가지를 물고 날아옴으로써 평화로운 신천지가 왔음을 알렸다는 것, 요르단 강에서 예수가 세례를 받자 하늘이 갈라지며 신령이 비둘기 형상을 하고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는 것 등에서 성서 속 비둘기의 긍정적 이미지를 가늠할 수 있다. 불경 속의 비둘기 이미지도 긍정적이다. 석가모니가 비둘기로 변신해 속임수를 쓰다 반죽음을 당하는 까마귀를 구제하는 불경 이야기가 이를 대변해 준다. 한편 중국의 비둘기 이미지는 부정적이다. 비둘기는 자기 살 집을 스스로 짓지 않고 이미 나 있는 나무 구멍이나 까치 집을 점거하여 산다 하여 나쁜 여자를 비둘기에 빗대기도 한다. 우리나라 민화에서도 비둘기는 긍정적으로 그려지지 않았다. 숲 속에 살던 까치와 꿩과 비둘기가 흉년이 들어 쥐 서방 집으로 양식을 구걸하러 갔다가 겸손하게 군 까치는 양식을 얻어 온 반면, 꿩과 비둘기는 쥐 각시에게 거만하게 굴다가 부젓가락으로 매만 맞게 되었는데, 불을 맞은 꿩은 불이 붉게 되었고 머리를 맞은 비둘기는 머리가 파랗게 되었다고 한다.

(라) 우리나라의 옛날 며느리들이 부엌 강아지란 걸 애지중지 길렀던 시절이 있었다.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약자인 강아지에게 발산함으로써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지메와 유사한 점이 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이지메란 집단적으로 특정한 아이를 따돌리고 괴롭히는 행위를 통해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지메는 세계 공통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서양에 '원숭이 우리 속의 돼지'란 속담이 있다. 동네북처럼 억울하게 이유 없이 당하는 것을 빗대는 말이다. 원숭이 우리에 돼지를 넣어 기르면 원숭이끼리의 싸움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한다.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우둔하고 행동이 느린 돼지에게 그 화를 발산해 버리기 때문이다.

[문제 1] 글 (가)를 서론으로 하는 글을 쓰기 위해 여러 문건으로부터 글감을 수집하였다가 글감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된 것이 (나)-(라)이다. 이것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쓰시오. (180~200자, 40%)

[문제 2] 글 (가)를 서론으로 해서 본론을 작성한다고 할 때, 본론에 들어갈 내용을 요약해서 쓰되 반드시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여 쓰시오. (280~300자, 60%)





■ 인문 전공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문제에 답하시오.

(가) 북곽 선생의 망치스런 꼴을 본 범은 코를 싸쥐고 외면을 하면서 말했다. “어허! 유학자가 왜 이리 구린고?” 북곽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며 세 번 절하고 꿇어앉아 범에게 말했다. “범님의 높은 덕망은 만인이 우러러 보는 바이며 그 명성은 성스러운 옹과 짝이 되어 ‘옹호’ 라고 하면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사옵니다.” 범은 얼굴을 찡그리고 꾸짖었다. “어허, 구리구내! 더러운 것이,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 일찍이 들으니 유(儒)는 유(誨)라 하더라. 유학자는 아침을 잘하는 자들이다. 지금 보니 과연 옳은 말이로구나. 너는 평소에 모든 나쁜 말을 동원하여 내 욕만 하더니, 목숨이 다급해지니 이제는 세상의 좋은 말을 모조리 골라가며 아침을 하고 있으니, 누가 너의 말을 믿겠느냐? 천하의 이치는 하나인 것이다. 호랑이가 참으로 나쁘다면 사람의 성품도 나쁜 것이요, 사람의 성품이 착하다면 호랑이의 성품도 또한 착한 법이다. 네가 입버릇처럼 삼강오륜을 떠들어 뱌자, 길거리에서 뻘뻘스럽게 쓰다니는 사람들은 모두가 글깨나 안다는 양반들이다. 그러나 이들을 갖은 수단으로 나쁜 일을 하는데 도무지 고치질 못한다. 범은 이런 일이 없으니 사람보다 어질지 않느냐?” 북곽 선생은 대답을 못하고 묵묵히 앉아 있는데, 범은 계속해서 꾸짖었다.

(나) 동심은 진심이다. 만일 동심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진심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동심이란 가식을 버린 순수한 마음이요, 최초의 일념인 본심이다. 만일 동심을 잃으면 곧 진심을 잃는 것이며 진심을 잃으면 참된 사람을 잃는 것이다. 동심은 어찌 것처럼 갑자기 상실되는가? 대개의 방도는 시초에 견문이 이목을 타고 들어와서 내심의 주인이 되면 동심이 상실된다. 장성하면 도리가 견문을 따라 들어와 내심의 주인이 되므로 동심이 상실된다. — 진실로 동심이 항상 보존되어 있다면 도리로 행하지 않고 견문으로 세우지 않아도 시절마다 문장이 아닌 것이 없고 사람마다 문장이 아닌 것이 없다. 한 가지도 참제함이 없고 격투에 묶인 문자는 문장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동심에 따라 느끼는 것이 절로 문장이 되니 어찌 다시 육경을 말하고 어찌 다시 『논어』·『맹자』를 말할 것인가? — 육경과 『논어』·『맹자』는 사관이 지나치게 숭상한 말이 아니면 그들의 제자들이 극도로 찬미한 말일 것이다. 또 그것도 아니면 우월한 문학생과 제자들이 스승의 말을 기억나는 대로 적되 머리만 있고 꼬리는 없으며 뒷말을 들었으나 앞말을 잊어버리고 소견에 따라 책에 기록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도 후학들은 살피지 못하고 성인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만 믿고 정해진 항목을 경전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니 그 태반이 성인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설사 그것이 성인에게서 나온 것이라도 그 요점은 병중에 따라 약을 쓴 수시 처방에 불과하며 이로써 이 어리석은 제자들과 우월한 문도를 바로잡기 위해 말한 것뿐이다. 의사·약사가 병에 따라 처방함에는 정해진 것과 고집하기 어려운 것이니 이를 어찌 만세의 지론으로 삼아 따를 수 있는가?

(다) 세속이 그렇다고 하면 따라서 그렇다고 말하고, 세속이 옳다고 하면 따라서 옳다고 말하더라도 그들을 도의 아침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 자기를 도인이라 말하면 반색하고, 자기를 아침꾼이라 하면 낯을 붉히며 성을 낸다. 그러나 평생 도인이란 평생 아침꾼일 뿐이다. 비위를 맞추고 말을 꾸며 대중을 모으는 것은 시종과 본말이 영원히 서로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것과 같다. 의상을 늘어뜨리고 채색으로 꾸미고 옹모를 바꾸면서 일세를 아양 부리면서도 스스로는 도에 아침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세속 사람들과 한 무리가 되어 옳다 그름을 함께하고서도 스스로는 중인(衆人)이라고 자인하지 않으니 지극히 어리석다. 자기가 어리석음을 아는 자는 크게 어리석은 것은 아니며, 자기가 미혹됨을 아는 자는 크게 미혹된 것은 아니다. 크게 미혹된 자는 종신토록 깨닫지 못하고 크게 어리석은 자는 종신토록 영명해지지 못한다.

(라) 남산 서편 우사단 아래 도동 물가 골목길의 푸른 기와집 사당에는 시뻘건 얼굴에 수염이 뻗쳐 있는 조각상이 있는데 영락없는 관운장이다. 남자나 여자나 학질을 앓을 때 좌상 밑에 들이밀어 놓으면, 당장 질겁하고 오한의 증세가 없어진다 하여 숭상된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무엄하게도 존엄한 상을 모독하며 그 눈망울을 굴러보지만 꺾어버리지도 않고 콧구멍을 쭉셔보지만 재채기도 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진흙으로 빚은 소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로 볼 때 수박을 겉으로 핥고 호추를 통째로 삼키는 무리와는 맛을 이야기할 수 없고, 이웃의 담비 가죽 옷이 부러워 여름에 빌려 입는 사람과는 시절을 이야기할 수 없다. 소상에 아무리 그럴듯하게 의관을 입혀놓아도 어린아이들의 진솔함을 속이지는 못한다.

[문제 1] 위 글 (가), (나), (다), (라)에서 공통으로 주장하는 바를 사회적 측면에서 논하시오. (225 - 250자)

[문제 2] 글 (나)에서 주장하는 “바람직한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글 (가), (다), (라)와 연관하여 논하시오. (225 - 250자)



■ 인문 전공 2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문제에 답하십시오.

(가) 종교와 마찬가지로 신화에도 성스러움과 초자연적인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신화들이 신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지만 다양한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 때로는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다. 신화와 종교가 때로는 동일한 기원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신화는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발생되고 변형되며 재창출되지만, 종교는 역사를 통해 단지 동일한 유형의 여러 해석만 하는데 제한된다. 아마도 그것은 종교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될 것이다. 따라서 신화는 종교에 종속적이지도 않고, 하위체계도 아니다. 오히려 신화는 형식의 자유로움 때문에 훨씬 더 포괄적인 범위를 갖기도 한다. (중략) 신화는 세계 구성의 원형 또는 세계형성의 모델이고, 종교는 '어떤 편위 있는 모델로서의 신화'에 근거한 생활세계, 생활방식, 또는 삶의 양식, 태도를 갖는 현상이라고 본다. 따라서 신화는 특정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한 종교 현상 또는 종교적 현상으로서의 종교세계 또는 문화권을 생산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본다.

(나) 신화는 완전히 예술과 미학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원시인들의 관념 속에서 신화는 예술과 미학의 성분을 지니기는 했지만, 종교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원시종교의 싹이 틈 이후에야 그것에 근거한 신화가 생겨나게 된다. 그리고 신화가 발생한 이후 그것은 종교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원시인들에게 우선 모호한 종교 관념이 생겨나고 거기에서부터 기본적으로 물(物)의 형태인 원시종교의 신이 나타난다. 그리고 나서 그 신을 의인화시켜 인간의 성격과 의지를 부여하면 그때에야 인간의 희망과 욕망을 지닌 신들의 이야기, 즉 신화가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신화 속에는 인간의 요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무력감에서 비롯된 원시종교와 확연히 구별되어진다. 이렇게 종교가 신화의 발생에 모종의 역할을 담당하기는 했지만 신화 자체도 변화하며 또한 후대에는 통치자들에게 이용당하여 종교의 발전을 유도하기도 한다.

(다) 기원전 6세기 경 히말라야 산맥 밑자락, 왕비 마야 부인이 45세쯤 되는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서 큰 꼬끼리가 코에 연꽃을 가지고 나타나 부인 주위를 일곱 바퀴 돌고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갔습니다. 그길로 마야 부인은 임신을 하게 되고, 친정으로 가는 도중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는 나오자마자 동쪽을 향해 일곱 발자국을 걸어가, 모든 중생들을 위해 성불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번이 마지막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시다르타(Siddhartha)로서 장차 부다가 될 아기였습니다.

(라) 제우스는 시밀레가 죽은 것을 보고 그녀의 자궁에서 아기를 낚아채어 자신의 넓적다리에 넣고 실로 꿰매었습니다. 석 달 후 제우스는 넓적다리의 실을 풀었고, 디오니소스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우스는 아기에게 뱀의 화관을 씌우고 올림포스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아들이었지만 디오니소스는 올림포스 신이 되어 선택된 신들의 사회에 마지막으로 합류했습니다. 결국 시밀레의 자궁과 제우스의 넓적다리에서 나온 디오니소스는 두 번 태어난 자 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문제 1] (다)와 (라) 신화는, 각각 글 (가)와 (나)의 관점 중, 어느 관점에 더 적합한 예인지를 논하십시오. (225 - 250자, 50%)

[문제 2] 글 (가)와 (나) 중, 동의하는 한 관점을 택하여, 신화와 종교의 기원, 관계 및 차이점에 대해, 다른 관점을 비판적으로 논하십시오. (225 - 250자, 50%)





■ 사회 전공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문제에 답하시오.

(가) 일부러 여론을 조롱하는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여론을 조롱한다는 것은 전도된 방식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론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정말로 여론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하나의 힘이자 행복의 원천이 된다. 지나치게 인습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일상불란하게 행동하는 사회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사회이다. 각자의 성격이 개성적으로 발전되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개성이 유지된다.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의 복사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나) 아무리 많은 다수라 하더라도 각자 자신의 판단과 욕구에 따라 움직인다면 공동의 적에 대한 방위를 전혀 기대할 수 없으며, 상호간의 권리 침해에 대한 보호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가진 힘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법에 관한 의견이 제각각일 경우에는 서로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고, 무익한 내부대립으로 말미암아 힘을 소진하게 된다. 따라서 극소수가 단결한 집단과 대적해도 쉽게 제압당할 뿐만 아니라, 공동의 적이 없을 때에는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내란이 벌어진다. (중략) 단일한 판단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일회의 전쟁이나 전투에서처럼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존재한다면 인간이 원하는 안전은 확보되지 않는다.

(다) 장자는 자연과 인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소와 말은 네 다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자연적이며, 말 머리에 멩을 얹고 소의 코에 고삐를 꿴 것은 인위적이다.” 요컨대 만물은 제 각기 나름의 타고난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각자가 그 본성에 따를 때 모두 행복할 수 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한다. “오리 다리가 비록 짧지만 이어주면 걱정거리가 되고, 학의 다리가 길지만 끊으면 슬픈 일이다. 본래부터 긴 것을 잘라서도 안되고, 본래부터 짧은 것을 이어서도 안된다.” 장자는 만물을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자연에 내어 맡겨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라) 시민들이 공공업무에 중사할 생각을 갖지 않을 때, 그리고 여가시간을 공적 의무에 바치려 하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게 될 때, 정부의 자리는 말하자면 공석이 된다. 이처럼 심각한 때에 어떤 유능하고 야심적인 사람이 최고통치권을 장악하게 되면, 그는 권리침해의 길을 찾아낼 것이다. 만약 그가 얼마간 국가의 물질적 번영에 신경을 쓰지만 하면, 더 이상 그에게 요구되는 바가 없을 것이다. 물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유 자체가 개인 복지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자유의 혼란이 개인 복지를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중의 소요에 관한 아무리 작은 소문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사소한 쾌락에 젖어 있는 개인생활에 파고들면, 그들은 정신이 번쩍 들고 놀라게 된다. 무정부상태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그들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들은 언제나 소요가 일어나자마자 그들이 누리는 자유를 포기해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마) 이상적으로 엄격한 아버지는 가정을 보호하고 부양하며, 자신의 권위를 잘 발휘하고, 절제 있고 도덕적이며, 예의 바르고 순종적인 자녀를 길러 낼 것이다. 이 자녀는 세계에 잘 적응하며 스스로 엄격한 아버지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엄격한 아버지는 결코 자녀를 응석받이나 버릇없는 아이로 만들지 않고, 나약함이나 우유부단함을 보여주지도 않으며, 자신의 권위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조종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정 모형에 내포되어 있는 사랑의 실체이다.

[문제 1] 위의 제시문들은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에서 개인중심적 혹은 집단중심적인 입장을 보여 주고 있다. 위 제시문들을 두 입장에 기초하여 구분하고, 그 이유를 자기 글로 서술하시오. (225 - 250자, 50%)

[문제 2] 주어진 제시문들의 내용을 활용하여 제시문 (가)의 입장에 상충되는 입장을 비판하시오. (225 - 250자, 50%)



■ 사회 전공 2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문제에 답하시오.

(가) 소비자들이 아무도 사전에 예약하지 않아도 백화점에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상품을 살 수 있고,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도 상품이 팔리지 않아 몽땅 쓰레기로 버리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대도시에서 점심시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동시에 식당에 예약을 하지 않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 식당으로 가지만, 큰 혼란 없이 자기가 원하는 식사를 해결하고 직장으로 돌아온다. 아무도 법으로 강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같은 대도시에 하루도 빠짐없이 방대한 양의 식료품이 공급되고, 사람들이 살 집을 짓고, 아침마다 가정에 신선한 우유가 어김없이 배달된다.

(나) 목이 긴 기린이 그보다 목이 짧은 기린들을 굶어 죽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린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굶어 죽어가고 있는 목 짧은 기린의 고통과 목이 긴 기린의 과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시대의 약은 위험, 불확실성, 그리고 무지의 결과인 것이다. 대기업을 경영하는 몇몇 사람들은 타인의 무지와 불확실성을 이용하여 이윤을 획득하고, 그 결과 부는 불공평하게 배분된다. 이에 이러한 상태를 방지하기보다는 정부가 개입하여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적절하게 규제한다면,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자본주의체제는 그 어떤 다른 형태의 경제체제보다도 가장 능률적인 경제체제인 것 같다.

(다)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경제정책의 기초를 시장지향과 성장우선으로 설정하고 이에 매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소득분배를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시장경제에 충실한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시장지향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고용확대를 하는 것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라)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부의 소수 집중과 빈곤의 확대, 실업자의 범람,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계급적 대립의 격화 등으로 자본주의 구조적 모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내게 되었다. 현재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 빈곤 등이 개인의 무능과 나태의 탓으로 돌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사회 구조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빈민을 구제하고 국민에게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일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결국 국가가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마) 분배를 통한 성장은 허구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분배를 강조할 경우, 성장과 분배는 동시에 달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성장이 멈추거나 후퇴할 수 밖에 없다. 또 분배를 강조할 경우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역설적인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는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부익부 빈익빈 체계가 아니다. 오히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부유해질 수 있는 체제이다. 분배를 통한 성장은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실제로 실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가난으로 이끌 뿐이다.

(바) 오늘날 경제문제는 우선적으로 소비의 부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문제는 소비의 부진이 가계소득의 전반적인 저하가 아니라, 소득분포의 악화에서 기인되었다는 점이다. 소득분포가 나빠진 원인은 소득의 분배 악화 때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조직 노동자와 비조직 노동자 등에서 나타나는 소득격차의 악화가 소비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분배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어느 나라에서나 성장은 분배를 필요로 하고 분배를 위한 부는 성장을 통해 축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서 분배는 가장 중요한 성장전략이다.

(사) 천지는 사물들을 저절로 그러도록 내버려두고, 무언가를 하는 것도 없고 만드는 것도 없지만 만물은 저절로 질서를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편애하지 않는 것이다. 땅은 짐승을 위해 풀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짐승은 그 풀을 먹고, 사람을 위해 소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사람은 소를 잡아먹듯이 만물에 대해서도 자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만물은 그 각기 그 용도를 만나면 각자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을 수 없다.

[문제 1] 제시문은 경제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제시문 (가)에 부합하는 제시문들과 이에 대립되는 제시문들을 둘로 나누어, 관점별로 연결시켜 특징을 기술하고,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조화방안을 제시하시오. (270 - 300자, 60%)

[문제 2] 제시문 (마)와 (바) 중, 동의하는 한 관점을 택하여 다른 관점을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180 - 200자,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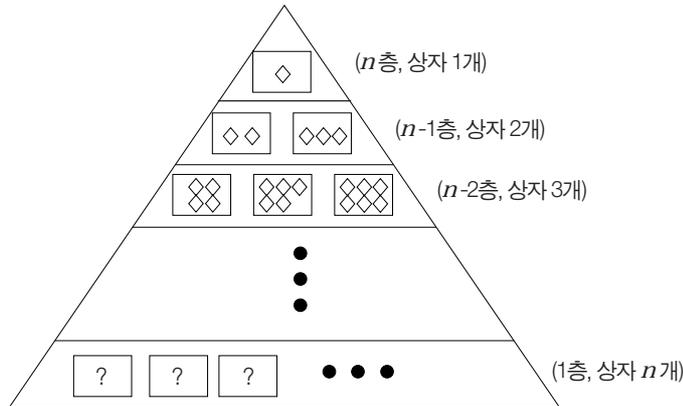




■ 자연 전공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문제에 답하시오.

아래 그림과 같이 n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피라미드를 건설하고자 한다. 그림에서 사각형은 보석 상자를, 마름모는 다이아몬드를 나타낸다. 피라미드의 n 층에는 1개의 보석 상자, $n-1$ 층에는 2개의 보석 상자, 이런 식으로 증가하여 맨 아래층에는 n 개의 보석 상자가 놓인다. 각 보석 상자에 담기는 다이아몬드는 1개씩 증가한다. 즉, 맨 꼭대기 보석 상자에는 1개의 다이아몬드를 담고, 그 다음 보석 상자부터 다이아몬드를 1개씩 늘려가며 담는다. 동일한 층의 보석 상자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담기는 다이아몬드가 1개씩 증가한다.



[문제 1] 이 피라미드에 필요한 전체 보석 상자의 개수를 n 으로 표현하시오.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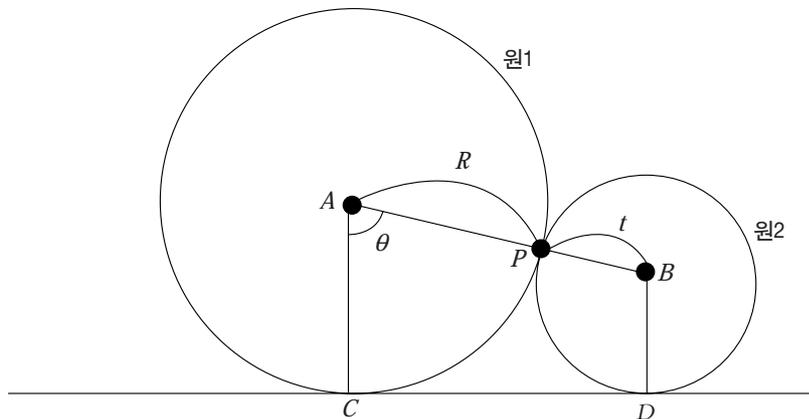
[문제 2] 1층에 있는 개의 보석 상자를 모두 채우는데 필요한 다이아몬드의 개수를 n 으로 표현하시오. (33.3...%)

[문제 3] n 이 홀수라고 가정할 때, 피라미드를 구성하는 모든 홀수 층에 있는 보석 상자 전체를 채우는데 필요한 다이아몬드의 개수를 n 으로 표현하시오. (33.3...%)

■ 자연 전공 2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문제에 답하시오.

중심이 A 이고 반지름이 R 인 원1이 아래 그림과 같이 고정된 점 C 에서 바닥과 접하고 있다. 원2는 중심이 B 이고 반지름이 시각 $t(t > 0)$ 일 때 t 이다. 또한 원2는 그림과 같이 점 D 에서 바닥과 접하고, 동시에 원1과 점 P 에서 접한다.



[문제 1] 시각 t 가 변화할 때 원2의 중심 B 의 자취는 어떤 곡선을 이루는지 설명하시오. (33.3...%)

[문제 2] 선분 AB 의 길이 \overline{AB} 와 선분 CD 의 길이 \overline{CD} 는 시각 t 에 대한 함수이다. \overline{AB} 와 \overline{CD} 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같아지는 시각 t 를 구하시오.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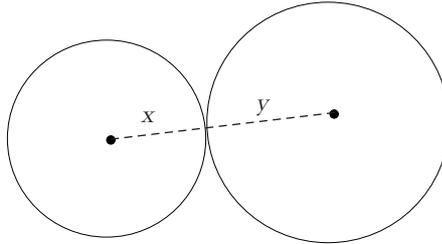
[문제 3] 점 P 의 속력이 $\frac{1}{2}$ 이 되는 시각 t 를 구하시오. (33.3...%)



■ Pre-Pharm · Med 전공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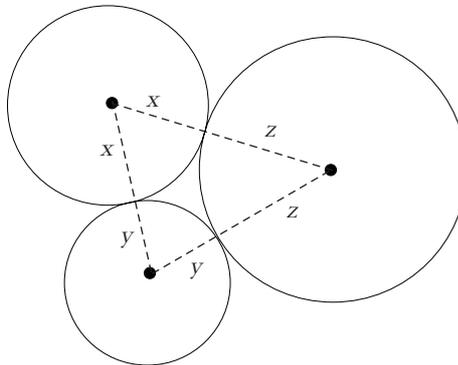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문제에 답하시오.

[문제 1] (그림 1)과 같이 서로 외접하는 두 원의 면적의 합이 일정하다고 한다. 이 두 원의 중심들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될 때, 두 원의 반지름들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설명하시오. (33.3...%)



(그림 1)

[문제 2] (그림 2)와 같이 서로 외접하는 세 원의 면적의 합이 일정하다고 한다. 이 세 원의 중심들 사이의 거리의 합이 최대가 될 때, 세 원의 반지름들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설명하시오. (33.3...%)



(그림 2)

[문제 3] [그림 2]와 같이 서로 외접하는 세 원의 면적의 합이 일정하다고 한다. 이 세 원의 중심들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면적이 최대가 될 때, 세 원의 반지름들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설명하시오. (참고: 세 변의 길이가 a, b, c 인 삼각형의 면적은, $s = \frac{1}{2}(a+b+c)$ 로 놓았을 때 $\sqrt{s(s-a)(s-b)(s-c)}$ 이다.) (33.3...%)

■ Pre-Pharm · Med 전공 2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아래의 문제에 답하시오.

[문제 1] 극한 $\lim_{x \rightarrow +0} x^x$ 이 존재하는가? 만일 존재한다면 그 값을 구하시오.

(참고 : $\lim_{x \rightarrow +0} x \ln x = 0$) (33.3...%)

[문제 2] $x > 0$ 일 때, x^x 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33.3...%)

[문제 3] $x > 0$ 일 때, $x^{x^x} = x^{(x^x)}$ 의 최소값과 x^x 의 최소값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33.3...%)

